

중년기 부부관계와 부부교육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 은 정*

〈차 례〉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년을 대상으로 중년기 부부가 중년기의 위기를 수반하는 이 시기를 잘 적응하도록 하고 보다 풍요로 부부교육 실시방법과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중년기 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주도에 거주하는 40세~60세의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총 1,000부를 배부하여 남편 355부, 아내 409부 총 764부가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현재 중년기에 처한 사람들은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중년기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부부교육 참가경험은 부부교육에 관해 들어보았다가 남편 54.4%, 아내 55.2%로 부부교육 실시가 비교적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부교육 실시 방법에 따른 요구를 살펴본 결과 부부교육은 평생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교육내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중년기 위기감은 남편들이 아내들 보다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내들에 비해서 남편들이 만족도가 높은 반면 다른 영역에서는 아내인 경우, 50대인 경우,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부부관계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우자 직업, 결혼형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월평균소득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체적으로 아내가,

* 이 논문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입니다.

본인연령이 46~50세 집단이, 고졸이하의 학력인 경우, 종교가 불교인 경우 부부교육 요구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부부관계에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 경험이 많을수록, 교육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부부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게 나타났다.

주요어 : 중년기,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부부교육요구도

I.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사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가 인구 구성의 변화로서, 고령화 현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중·노년층이 늘어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72.1세, 여자 79.5세이다. 반면 가족계획으로 인해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일반적으로 생활연령상 중년기로 일컬어지는 40~59세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¹⁾

중년기는 개인적인 성취와 사회적인 공헌을 쌓아 가며 인생의 완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그러나 그 성취 이면에 있어 자아통찰과 가정에서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고, 자아정체감 확립과정에서 심리적 허탈감과 갱년기 노화로 인한 신체적 무력감을 감지하게 된다.²⁾ 또한 중년기에는 자녀의 성장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부부관계가 다시 하위체계로 부상하는 시기라는 점으로 가정의 정체성과 정서적 분위기 및 가정관리와 같은 규칙들은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이시기는 긴장과 갈등, 상실감의 시기라는 부정적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에서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³⁾, "양쪽에서 협공받는 세대"⁴⁾ 또는 "빈 보금자리기"⁵⁾ 등의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가정을 배경으로 할 때 이해가 가능하며 특히 이것

1) 2000년 중년기 인구 : 40~49세(6,898,728) 50~59세(4,295,210)

2) 신기영·옥선화(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p.162.

3) E. Leshan(1973), *The Wonderful Crisis of Middle Age*. N.Y.: Waner Paperback Library, pp.48-50.

4) C. E. Vincent(1972), "An Open Letter to Caught Generation", *The Family Coordination*, Vol.21, NO.1, pp.143-150.

5) D. C. Borland(1978), "Research on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Vol.8, No.4, pp.379-386.

의 극복이 부부사이에서 조명될 때 상실감이 회복되어 협공받는 느낌이 메꾸어지며, 빈 보급자리의 공허감이 충족되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중년층의 삶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자녀수의 감소로 양육기간이 짧아져 부부간에 함께 살아 가야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또한 국가 경제력 또는 사회 여건 등의 변화로 정년퇴직제도의 확산과 조기퇴직이 이루어지면서, 이로 인한 중년층의 실직률이 급증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년기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⁶⁾하고 경제력 상실로 인한 남성의 자살율이 증가⁷⁾하는 등의 사회적 현상을 볼 때, 이러한 특수한 가족문제들이 한국사회에서 중년층의 위기로 나타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해방운동 등으로 자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많은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중년세대는 전과는 다른 변화와 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 세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와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년기 인구의 증가와 사회 및 국가에 미치는 중년들의 영향력⁸⁾ 등으로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시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부교육에 관한 연구는 중년기를 맞은 부부뿐 아니라 사회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⁹⁾

이미나(2000)¹⁰⁾는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해 겪는 사춘기는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 시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지침들이 제시된 반면, 사실상 성인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역시 중요한 전환기인 중년기 전환시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무지해온 점을 지적하며, 중년기 전환시점이 사실 사춘기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임을 역설했다. 결국 20대 이후 성인의 위기에서부터 중년의 위기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무관심했으며 무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중년의 초입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시점이고 내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으며 실상에 대한 분석과 설명조차 부족하다고 본다.

6) 조선일보, "황혼이혼", 10년간 3배 늘어, 2003. 3. 27. 사회면.

7) 조선일보, 불황 때 자살 급증, 2003. 4. 23. 경제란

8) 예창명(1996), "중년기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요구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1.

9) 정현숙(1998), "부부관계의 기초", 가족생활교육사(2급) 연수과정 연수교재, p.104.

10) 이미나(2000), 「흔들리는 중년 두렵지 않다」, 한겨레신문사.

중년기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혁신적으로 삶을 풍성히 하고 결혼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은 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¹¹⁾.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이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구성원 모두 재사회화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파악하고 동시에 새로운 가족생활 기술을 발달시켜야만 한다.¹²⁾ 따라서 중년기에 맞이하는 기회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생활교육, 특히 중년기를 위한 부부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결국 중년기의 문제는 복합적이다. 즉 중년기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가족상호간의 문제이며,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¹³⁾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부부관계만족도가 이전보다 낮아지고, 위기감이 커져가는 현실에서, 지역사회는 정부차원에서 중년들의 프로그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교육적 중재를 위해서는 중년기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이 아닌 전반적인 위기극복을 강조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중년기에 생물학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에 근거를 두어, 중년기 부부관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떤지 살펴보고, 중년들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위기감 경험 정도가 부부교육내용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 중년기라는 인생의 특수한 발달단계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우선 알아야 한다. 즉 중년기는 정도의 차이일 뿐 중년의 전환점에 선 많은 이들은 결코 적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중년기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젊음의 상실감과, 가정, 사회에 대한 불만, 죽음에 대한 의문, 현실에 대한 절망, 변화에 대한 갈망 등으로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11) H.Clinebell, Growth Counselling for Marriage Enrichment, 이종현 역(1990), 대한기독교서회, p.145.

12) 유영주 외(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p.312.

13) H.Clinebell, 이종현 역(1990), 상계서, p.145.

중년기는 자녀의 독립이 시작되고 가족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정서적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¹⁴⁾ 따라서 중년기는 일생의 절정기인 동시에 중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로서 이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인생후기를 보다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생활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로 그 어느 시기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은 결혼하기 전, 신혼 일년간, 그리고 중년기 및 노년기를 준비하는 기간들이다.¹⁵⁾ 이에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시점 중에서도 결혼생활 중반기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년기에 도움을 주는 연구인만큼 그 의의도 크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제주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부부교육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중년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부부교육 요구도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그들이 위기현상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고, 중년기 전환점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지침 등을 배움으로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부부교육이 가족생활교육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함은 물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연구문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중년기 부부교육요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배경변수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배경변수에 따라 중년기 위기감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4. 배경변수,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위기감에 따라서 부부교육 요구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14)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제 29권 1호, p.204.

15) D.R.Mace(1987), "Three Ways of Helpi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13, pp.179~180.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년기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시기로, 이 연구에서는 Daniel J. Levinson¹⁶⁾의 연구에 따라 40~60세의 연령을 중년기로 정의하였다.

2)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관계란 성숙한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결합되는 관계이다. 이 연구에서 중년기 부부관계 만족도를 부부관계 자체보다 그것을 부부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3) 중년기 위기

중년기 위기는 중년기로의 변화와 적응과정에서 긴장감이나 실망감 등의 증세를 보인다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 및 과거·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제시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중년기에 느낄 수 있는 중년기 위기에 대한 것으로 한정해 조사했다

4) 부부교육

부부교육이란 부부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정보, 지식, 지침 등을 마련해 주는 체계적이고 개념화된 교육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중 중년들의 역할수행을 돕는 교육으로 한정하였다.

5) 부부교육 내용 요구

교육요구란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결핍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원하는 상태를 말한다.

6) 부부교육 실시방법 요구

다양한 부부생활에 관한 교육적 활동들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부부교육의 실시방법이다.

16) Daniel J. Levinson., Judy D. Levinson.(1996),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The Seasons of a Woman's Life)」, 김애순 역(1998), 세종 연구원.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문항에 대한 이해와 조사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는 2002년 8월 1일부터 31일 까지 6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검토·분석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년기 인구를 고려하여 제주시지역, 서귀포지역, 북제주군지역, 남제주군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학생 자녀를 학부모,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총 1,000부를 배부하여 812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여 총 764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이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과 부부교육 요구도, 부부교육 실시방법 요구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설문지의 종속변수인 부부관계 만족도(10문항), 부부교육내용 요구도(25문항)에 관련된 척도는 Ferris(1985), 김혜석(1990), 예창명(1996), 김명자·송말희(1998)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2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내용은 다시 수정하여 쉽게 풀어서 표현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C SAS Program(Ver 6.1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특성, 부부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

포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부부교육요구도의 전반적인 경향과 부부관계 만족도, 중년기 위기감에 따라 남편과 아내간 비교를 위해 평균을 구하고, t-test, ANOVA로 유의도 검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또 부부관계 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부부교육 요구도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을 구하고,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부부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1) 부부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

부부교육의 필요성과 필요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부부교육 필요성 및 이유

변 인	빈 도(%)						
	남 편		아 내		전 체		
	빈도	%	빈도	%	빈도	%	
필 요 성	매우 필요	47	13.2	72	17.6	119	15.6
	조금 필요	194	54.6	212	51.8	406	53.1
	조금 불필요	79	22.3	84	20.5	163	21.3
	매우 불필요	35	9.9	41	10.0	76	9.9
	계	355	100.0	409	100.0	764	100.0
필 요 이 유	현재 부부관계의 재평가를 위해	44	18.3	62	21.8	106	20.2
	서로의 사랑확인 및 유지를 위해	43	17.8	28	9.9	71	13.5
	부부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62	25.7	60	21.1	122	23.2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73	30.3	117	41.2	190	36.2
	대처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8	7.5	14	4.9	32	6.1
	기타	1	0.4	3	1.1	4	0.8
	계	241	100.0	284	100.0	525	100.0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표에서 볼 때 중년기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부부교육이 "별로 필요하지 않음"과 "전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보다 부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한편 예창명(1996)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취업주부의 경우 91.27%, 비취업주부의 경우 84.48%로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부교육 필요 이유는 "중년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방법을 습득하기 위해"로 남편 30.3%, 아내 41.2%로 아내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중년의 위기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년기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달려있고, 또한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중년기에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부부교육 참여 경험

부부교육 참여 여부는 부부교육 참여 경험, 참여했을 대의 도움 정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부부교육에 관해 들어보았다"는 남편 54.4%, 아내 55.2%로 부부교육 실시는 확대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교육에 참가한 경우를 살펴보면 남편 12.1%, 아내 11.2%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창명(1996)¹⁷⁾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예창명(1996)은 중년기 취업주부의 경우 교육 참여경험이 16.7%, 비취업주부의 경우 8.7%로 조사되어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교육에 관해 들어보았지만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남편 42.3%, 아내 44.0%로 아내들이 참여기회가 적거나 참여조건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실시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부부를 위한 교육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이 아내보다는 남편위주의 교육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표1>과 같이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는 있지만 참여율이 적어 앞으로는 남편과 아내 모두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운영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7) 예창명(1996), 전제논문, p.72.

〈표 2〉 부부교육 참여 여부

변인		남편		아내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들어보고 참여한 적 있음		43	12.1	46	11.2	89	11.6
참여 후 도 움	매우 도움 됨	13	30.2	9	19.5	22	24.7
	조금 도움 됨	20	46.5	24	52.1	44	49.4
	보통	7	16.2	9	19.5	16	17.9
	별로 도움되지 않음	2	4.6	4	8.6	6	6.7
	전혀 도움되지 않음	1	2.3	·	·	1	1.1
	계	43	100.0	46	100.0	89	100.0
들어보았으나 참여하지 않음		150	42.3	180	44.0	330	43.2
들어보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않음		162	45.6	183	44.7	345	45.2
참여 경 험	불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8	5.3	16	8.9	24	7.3
	조건(시간, 돈)이 맞지 않아서	106	69.7	117	65.4	223	67.4
	관심이 없어서	22	14.5	20	11.2	42	12.7
	유 기타	16	10.5	26	14.5	42	12.7
	계	152	100.0	179	100.0	331	100.0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부부교육 참여 후 도움 정도는 참여경험이 있는 남편 44명, 아내 49명 총 93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부교육의 효과는 남편들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간 도움이 되었다"의 경우를 포함한다면 부부교육에 참가한 부부들 대부분이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함으로써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조건(시간, 돈 등)이 맞지 않아서"로 부부교육을 실시할 때 시간, 비용, 장소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남편들이 약간 높게 나타나 <표1> 과 같이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어떤 이유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지, 혹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부부교육 실시 방법과 형태

부부교육의 실시 방법과 형태는 부부교육을 받는 적당한 시기, 교육기관, 교육방법, 강사, 참가할 때 가장 먼저 고려 사항, 참가비로 분류하였다. 부부교육 실시형태를 구체적으로 요일, 시간대, 교육인원, 강좌 당 교육시간, 1주·월·연 횟수, 교육기간, 후속모임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부부교육을 받는 적당한 시기는 "평생동안 계속되어야 한다"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결혼 후 계속"을 "평생동안 계속"에 포함한다면 더 많은 부부들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부부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를 제외하고 부부교육이 남편과 아내 각각 신혼~첫 자녀 출산 시기와 자녀 출산 후에 실시하는 것을 가장 낮게 응답하고 있어, 아마도 부부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현재 중년기임을 감안 할 때 중년기를 앞두고 있거나 중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내포된 것이라고 보인다.

송정아 외(1998)¹⁸⁾는 통합적 접근에 의한 가족생활교육 내용에서 미혼기의 결혼 준비교육, 신혼기의 적응교육 및 부부교육과 성교육, 신혼기의 결혼과 직업 및 고부교육, 자녀아동기의 부부교육, 자녀 청소년기의 부부교육, 중년기 부부교육 및 성교육과 은퇴준비교육, 노년기의 은퇴적응교육 및 치매와 죽음준비교육 등으로 부부교육을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교육이 단지 현재 중년기 부부인 경우, 혹은 결혼을 앞두고거나, 성인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부교육이 가족생활교육의 하나로서 평생교육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에 의하면 부부교육에 적당한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YWCA나 여성 상담소와 같은 시민단체, 대학의 평생교육원, 공공기관, 상담소 순 이었다. 아내의 경우는 YWCA나 여성 상담소와 같은 시민단체, 상담소, 대학의 평생교육원, 공공기관 순으로, 문화 단체나 종교단체는 아내들의 선호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예창명(1996)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주부의 경우 전문연구단체, 기업이나 직장단체,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대학이나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 마을회관 등의 사회복지단체 순으로 나타나고, 취업주부의 경우 기업이나 직장단체를, 비취업주부의

18) 송정아·전영자·김득성 공저(1998), 「가족생활 교육론」, 교문사. p.35-37.

〈표 3〉 부부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요구도

빈도(%)

변 수	남편	아내	전체	
	빈도(%)	빈도(%)	빈도(%)	
교육시기	결혼 전	76 (21.4)	97 (23.7)	173 (22.6)
	신혼~첫 자녀 출산	45 (12.7)	34 (8.3)	79 (10.3)
	자녀 출산 후	30 (8.5)	52 (12.7)	82 (10.7)
	결혼 후 계속	87 (24.5)	89 (21.8)	176 (23.0)
	평생동안 계속	91 (25.6)	114 (27.9)	205 (26.8)
	기타	26 (7.3)	23 (5.6)	49 (6.4)
교육기관	공공기관	64 (18.0)	44 (10.8)	108 (14.1)
	대학의 평생교육원	92 (25.9)	85 (20.8)	177 (23.2)
	시민단체	102 (28.7)	137 (33.5)	239 (31.3)
	상담소	62 (17.5)	90 (22.0)	152 (19.9)
	문화단체	18 (5.1)	22 (5.4)	40 (5.2)
	일반 사설학원	·	3 (.7)	3 (.4)
	종교단체	9 (2.5)	20 (4.9)	29 (3.8)
기타	8 (2.3)	8 (2.0)	16 (2.1)	
교육방법	강의와 강연	64 (18.0)	41 (10.0)	105 (13.7)
	토론과 대화	136 (38.3)	194 (47.4)	330 (43.2)
	강의와 토론	115 (32.4)	108 (26.4)	223 (29.2)
	실습과 훈련	33 (9.3)	60 (14.7)	93 (12.2)
	기타	7 (2.0)	6 (1.5)	13 (1.7)
강사	가족생활교육사	313 (88.2)	370 (90.5)	683 (89.4)
	사회유명인사	18 (5.1)	14 (3.4)	32 (4.2)
	초·중·고 교사	5 (1.4)	5 (1.2)	10 (1.3)
	관공서 기관장	3 (0.8)	5 (1.2)	8 (1.0)
	기타	16 (4.5)	15 (3.7)	31 (4.1)
고려사항	강사진	36 (10.1)	33 (8.1)	69 (9.0)
	교육내용	223 (62.8)	223 (54.5)	446 (58.4)
	참가비	25 (7.0)	30 (7.3)	55 (7.2)
	실시기관	9 (2.5)	5 (1.2)	14 (1.8)
	강의시간	19 (5.4)	42 (10.3)	61 (8.0)
	교통사정(장소)	13 (3.7)	13 (3.2)	26 (3.4)
	가족들의 이해	25 (7.0)	45 (11.0)	70 (9.2)
기타	5 (1.4)	18 (4.4)	23 (3.0)	
참가비	3만원 미만	169 (47.6)	191 (46.7)	360 (47.1)
	3~5만원 미만	112 (31.5)	140 (34.2)	252 (33.0)
	5~10만원 미만	41 (11.5)	32 (7.8)	73 (9.6)
	10만원 이상	3 (0.8)	7 (1.7)	10 (1.3)
	기타	30 (8.5)	39 (9.5)	69 (9.0)
계	355 (100.0)	409 (100.0)	764 (100.0)	

경우 전문연구단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교육에 적합한 교육 방식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토론과 대화"가 38.3%, "강의와 토론"이 32.4%이고, 아내의 경우 "토론과 대화"가 47.4%, "강의와 토론"이 26.4%로 나타나고 있다. "강의와 강연"은 남편 18.0%, 아내 10.0%이며, "실습과 훈련"은 남편 9.3%, 아내 14.7%로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교육 방법에 있어 아주 적극적이지도 않고 아주 소극적이지도 않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응답률을 보인 "토론과 대화"는 그나마 익숙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보아지고, 역할놀이중심의 직접적인 "실습과 훈련"이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이러한 교육방식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부부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부부교육을 진행하기에 적당한 강사로 중년기 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문가 즉 "가족생활교육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부부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숙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에 학회나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부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교육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부교육을 실시할 때는 그 시기에 있는 부부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교육내용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부교육을 실시할 때는 참가대상에 따라 적절한 교육 내용은 물론 강의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부교육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를 살펴보면 3만원 미만이 남편 47.6%, 아내 46.7%로 가장 많고, 3~5만원, 5~10만원 순으로 나타나 부부교육이 사회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변수는 부부관계 만족도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했다.

〈표 4〉 개인·가족 관련 변수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개인관련변수		중년기 위기감			가족관련변수		중년기 위기감		
		M	F(t)	DMR			M	F(t)	DMR
본인 성별	남	17.37	4.60***		배우자	1	16.48	-0.65	
	여	5.86			학력	2	16.71		
본인 연령	45세이하	17.18	190.34***	A	배우자	1	16.00	26.66***	D
	46~50세	17.21			2	16.27	C		
	51세 이상	15.45			3	16.77	B		
본인 학력	1	16.32	-1.89*		직업	4	17.07		A
	2	16.96							
본인 종교	불교	16.57	15.25***	B	결혼 형태	중매혼	16.08	20.32***	B
	기독교·천주교	16.89			연애혼	16.63	A		
	기타	6.26			중매+연애	16.70	A		
여가 활동	만족	17.69	5.32***		결혼 여부	초혼유지	16.67	2.32*	
	불만족	15.88			기타	15.11			
대화 시간	충분	17.28	2.59**		주거 형태	단독주택	16.39	18.48***	B
	부족	16.27				아파트	16.99		
결혼 생활	만족	17.59	8.60***			기타	A 16.44		B
	불만족	14.72							
부부 관계 만족도	하(10-20점)	17.73	164.33***	A	주택 소유 형태	자가	16.51	5.24***	B
	중(21-30점)	16.33			전세	16.98	A		
	상(31-50점)	15.47			기타	16.58	B		
교육 참여 여부	경험있음	16.37	23.61***	B	가족 형태	핵가족	16.55	-0.28	
	불참	16.90				기타가족	16.70		
참여후 소감	경험없음	16.29	-0.03			월평균 소득	1	15.58	C
	도움됨	16.56				2	16.47	143.53***	B
	도움안됨	16.60				3	17.34	A	

- 1) 학력 : 1(고졸) 2(전문대졸 이상)
- 2) 직업 : 1(전문·행정·관리직) 2(사무·판매·서비스직) 3(주부·무직)
4(기타: 생산직, 농·수산업, 자영업, 기술직, 파트타임, 임시직 포함)
- 3) 가족형태 : 핵가족(혼자, 부부, 미혼자녀 가족 포함),
기타가족(친척, 딸·아들부부가족 포함)
- 4) 월평균 소득 : 1(200만원 이하) 2(200~300만원) 3(300만원 이상)
- 5) *p<.05 **p<.01 ***p<.001
- 6) DMR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개인관련변수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을 보면, 조사대상자 본인이 남자인 경우, 본인 연령, 본인학력, 종교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50세 이하 집단과 51세 이상의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40대 에도 중년기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 학력은 높을수록 중년기 위기감을 덜 느끼고 있고, 종교에 따라서 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종교가 기독교 혹은 천주교인 경우 중년기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고, 여가활동, 대화시간, 결혼생활 변수에서 세 영역 모두 만족하다고 느끼고 있어도 위기감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부부관계 만족도에서도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하, 중, 상의 세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중년기 위기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가 중년기 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가족관련 변수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을 살펴보면, 배우자 직업, 결혼형태, 결혼여부, 주거 형태, 주택소유형태, 월평균 소득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의 직업은 네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기타집단의 경우 즉, 직업이 생산직, 농·수산직, 자영업, 기술직, 파트타임, 임시직인 경우에 중년기 위기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월 평균 소득은 중년기 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상 대부분의 중년들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4.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

여기서는 개인관련 변수에 따른 중년기 부부관계 만족도만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부부역할 영역과 의사소통기술 영역은 본인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애정표현과 여가활동영역에서는 본인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성생활 영역은 성별, 본인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관련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가활동 영역에서 보면 46-50세 이상 집단과 51세 이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51세 이상 집단이 부부관계에서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만족도

변 수		부부역할 영역		애정표현 영역		의사소통 영역		여가활동 영역		상생활 영역	
		M	D	M	D	M	D	M	D	M	D
성 별	남	1.99		2.07		2.20		2.50		2.60	
	여	2.20		1.90		2.46		2.66		2.71	
	t 값	-2.91**		2.90**		-3.74***		-2.03*		-1.54	
본인 연령	45세 이하	4.08		5.03	A	4.89		5.72	BA	5.19	B
	46-50세	4.01		4.61	B	4.85		5.55	B	5.17	B
	51세 이상	4.15		5.04	A	4.78		5.88	A	5.55	A
	F 값	0.89		13.29***		0.68		4.80***		12.89***	
본인 학력	고졸	2.18		1.94		2.44		2.64		2.68	
	전문대졸 이상	1.96		2.05		2.19		2.51		2.64	
	t 값	2.96**		-1.70		3.41***		1.57		0.51	
본인 종교	불교	4.23	A	5.21	A	4.87	BA	6.03	A	5.66	A
	기독교·천주교	3.95	B	4.62	C	4.68	B	5.30	C	4.94	C
	기타	4.02	B	4.84	B	4.95	A	5.70	B	5.17	B
	F 값	5.19***		25.66***		3.57*		21.24***		38.92***	
여가 활동	만족	1.74		1.86		1.86		2.24		2.24	
	불만족	2.32		2.06		2.64		2.80		2.92	
	t 값	-8.53***		-3.41***		-12.16***		-7.30***		-9.83***	
대화 시간	충분	1.64		1.69		1.73		2.17		2.12	
	부족	2.29		2.10		2.59		2.76		2.88	
	t 값	-9.71***		-7.14***		-13.68***		-7.11***		-11.20***	
결혼 생활	만족	1.78		1.87		1.96		2.32		2.42	
	불만족	2.66		2.18		3.02		3.08		3.10	
	t 값	-11.58***		-5.04***		-16.95***		-9.99***		-9.76***	
중년기 위기감	하(5-13점)	4.19	A	5.22	A	5.19	A	5.97	A	5.55	A
	중(14-19점)	4.21	A	5.10	A	4.91	B	5.75	A	5.52	A
	상(20-25점)	3.82	B	4.45	B	4.44	C	5.48	B	4.84	B
	F 값	10.64***		43.07***		26.80***		8.33***		38.85***	
교육 참여 여부	경험 있음	3.95	B	4.75	B	4.22	C	5.13	C	4.69	C
	불참	4.05	A	4.75	B	4.74	B	5.60	B	5.28	B
	경험 없음	4.25	A	5.17	A	5.10	A	6.00	A	5.50	A
	F 값	13.82***		17.87***		26.16***		20.14***		25.10***	
참여 후 소감	도움 됨	2.07		2.00		2.34		2.57		0.98	
	도움 안 됨	2.96		1.52		2.52		3.28		2.56	
	t 값	-4.34***		2.96**		-0.90		-3.28***		0.55	

1) *p<.05 **p<.01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성생활 영역에서는 50세 이하 집단과 51세 이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역시 51세 이상 집단에서 부부성생활 영역에서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에 출현하는 문혀있던 반대 성의 영향으로 남녀가 모두 양성성으로 변화하면서, 50대에 이르러 남녀차이가 좁혀지고 애정표현을 하게되고, 여가를 함께 즐기며, 자신의 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본인 학력은 부부역할 영역과 의사소통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영역 모두 고졸이하 집단에서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인학력이 부부역할과 의사소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종교는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생활 영역에서는 불교 집단과 그 외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기독교와 천주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집단과 기타종교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간에 차이가 있으며 기타종교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부부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에 따라서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남녀간에도 차이는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여가활동, 대화 시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여가활동에 불만을 느낄수록, 대화가 부족할수록,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중년기 위기감의 경우, 중년기 위기감이 낮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는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참여 여부는 부부역할 영역에서는 경험이 있는 집단, 들어는 보았지만 참여하지 않았거나 들어보지도 않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애정표현 영역에서는 경험도 있고 들어보았지만 불참한 집단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집단간에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세 영역은 세 집단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은 집단의 부부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이유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5. 배경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도

1)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도

개인관련변수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Duncan's-Test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교육요구도

변 수		중년기특성 이해 영역		부부관계 영역		의사소통 기술영역		성관계개선 영역		건강 영역		기타중년기 관련 영역	
		M	D	M	D	M	D	M	D	M	D	M	D
성 별	남	8.53		8.02		8.26		9.66		7.95		10.90	
	여	8.27		7.80		7.80		9.87		7.55		10.30	
	t 값	1.30		1.06		2.15*		-0.90		1.91*		2.17*	
본인연령	45세 이하	8.38		7.87		8.03		9.67		7.80		10.56	
	46~50세	8.71		8.02		8.46		9.97		8.12		10.98	
	51세 이상	8.20		7.87		7.71		9.77		7.42		10.35	
	F 값	1.97		.23		4.00**		.57		3.74*		1.78	
본인학력	고졸이하	8.61		8.16		8.23		10.16		7.86		10.89	
	전문대졸 이상	8.03		7.48		7.66		9.14		7.53		10.07	
	t 값	2.71***		2.50***		2.43**		3.82***		2.13*		3.40***	
본인종교	불교	8.70	A	8.24	A	8.41	A	9.96		7.75		10.87	A
	기독교	8.14	B	7.83	BA	7.80	B	9.47		7.60		10.12	B
	기타	8.19	B	7.51	B	7.66	B	9.79		7.85		10.59	BA
	F 값	2.93***		3.30***		2.62***		4.28***		1.56		2.91***	
여가활동	만족	8.25		7.62		7.65		9.17		7.65		10.05	
	불만족	8.48		8.08		8.23		10.14		7.79		10.89	
	t 값	-1.09		-2.20*		-2.64***		-4.09***		-0.70		-2.98***	
대화시간	충분	8.40		8.00		7.98		9.10		7.80		10.09	
	부족	8.39		7.86		8.03		10.05		7.71		10.78	
	t 값	0.20		0.62		-0.22		-3.53		0.38		-2.26*	
결혼생활	만족	8.40		7.86		7.79		9.58		7.73		10.50	
	불만족	8.39		7.98		8.42		10.12		7.75		10.72	
	t 값	0.02		-0.53		-2.75***		-2.19*		-0.10		-0.75	
부부관계만족도	하(10-20점)	7.77	B	7.26	B	7.24	B	8.67	B	7.34	B	9.72	C
	중(21-30점)	8.58	A	8.07	A	8.26	A	10.07	A	7.96	A	10.68	B
	상(31-50점)	8.76	A	8.39	A	8.46	A	10.56	A	7.66	BA	11.63	A
	F 값	7.96***		9.21***		11.58***		20.33***		3.62*		12.17***	
중년기위기감	하(5-13점)	7.78	B	7.32	B	7.63	B	9.37	B	7.28	B	9.83	B
	중(14-19점)	8.45	A	8.11	A	7.93	B	9.94	A	7.78	A	10.72	A
	상(20-25점)	8.85	A	8.13	A	8.49	A	9.90	BA	8.09	A	11.04	A
	F 값	8.79***		6.84***		5.58***		2.52**		4.71***		6.90***	
교육참여부	경험 있음	7.43	B	6.96	B	7.30	B	8.87	B	7.16		9.33	B
	불참	8.35	A	7.82	A	7.98	A	9.73	A	7.83		10.74	A
	경험 없음	8.68	A	8.23	A	8.23	A	10.05	A	7.80		10.75	A
	F 값	7.88***		8.50***		4.13**		5.44***		2.21		6.33***	
참여후소감	도움 됨	8.41		7.94		8.02		9.77		7.73		10.62	
	도움 안 됨	7.76		6.96		7.92		9.88		7.96		9.44	
	t 값	1.16		1.72		0.17		-0.12		-0.27		1.54	

1) *p<.05 **p<.01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6〉에 의하면 중년기 특성 이해는 본인 학력·종교·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교육 참여 여부에서, 부부관계 영역은 본인학력·종교·여가활동·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교육 참여 여부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은 성별, 본인 연령, 학력, 종교, 여가활동·결혼생활·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교육참여 여부에서, 부부간의 성관계 개선영역은 본인학력·종교·여가활동·결혼생활·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교육 참여 여부에서, 건강은 성별·본인연령·본인학력·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에서, 기타 중년기 관련영역은 성별·학력·종교·여가활동·결혼생활·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교육 참여여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교육 참여 후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각각의 변수를 중심으로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의사소통기술, 건강, 중년기 관련 기타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세 영역 모두 남편들의 요구도가 높았다. 본인 연령은 의사소통기술영역과 건강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영역 모두 46~50세 집단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인 학력은 모두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고졸 이하인 사람들의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종교가 불교인 경우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생활교육과 종교는 대체적으로 많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¹⁹⁾으로 종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교육은 종교적 요소를 적절히 조절하여 다양하게 구성된다면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종교기관과 가치는 가족생활에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²⁰⁾ Thornton(1989)²¹⁾은 종교와 가족과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고, 가족생활의 변화는 종교기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가족변화에 대한 교회의 적절한 대처는 가족생활에서의 종교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부교육과 종교는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중

19) 오윤자(199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p.44.

20) S. Hauerwas(1985). "The family as a school for character", Religious Education, Vol.80, pp.272-285.

21) A. Thornton(1989). "Changing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p.890.

교는 개인에게 안정과 위안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중년기 위기감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²²⁾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요인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가활동은 만족하지 않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는 낮게 나타났다. 중년기는 자녀들의 결혼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공허감, 고독감까지 느껴 신경증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건전한 취미 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²³⁾ 대화시간은 기타 중년기 관련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대화시간이 부족할수록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 수준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결혼 생활은 만족하지 않은 경우 이 두 영역에서 부부교육 요구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부부관계는 여섯 영역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부부관계가 만족할수록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Duncan's-Test한 결과 기타 중년기 관련 영역에서만 상, 중, 하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년기 위기감을 많이 느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성관계 개선영역은 하, 중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 참여 여부는 건강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이 교육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나 들어는 보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부부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2)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도

가족관련변수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도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여 각각의 변인을 중심으로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직업 경우, 의사소통 기술 영역에서 1집단과 2집단, 그리고 4집단간에 차이를 보이 있는데 이는 직장마다 요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며, 특히 4집단 즉, 생산직, 농·수산직, 자영업, 기술직, 파트타임,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 요구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2) 신기영(1990),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p.211.

23) 이정우 외(1990),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p.93.

〈표 7〉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교육요구도

범 수	중년기특성 이해 영역	부부관계 영역		의사소통 기술 영역		성 관계 개선 영역		건강 영역		기타중년기 관련 영역	
		M	D	M	D	M	D	M	D	M	D
배우자 학력	고졸	8.55	8.09	8.21	10.10	7.90	10.92				
	전문대졸 이상	8.03	7.56	7.67	9.18	7.44	9.96				
	t 값	2.77	2.49	2.44	3.91	2.14	3.48				
배우자 직업	1	7.77	B	7.15	B	7.07	C	9.16	B	7.20	B
	2	8.41	A	8.00	A	7.88	B	9.72	BA	7.86	A
	3	8.59	A	8.08	A	8.36	BA	10.03	A	7.80	BA
	4	8.72	A	8.41	A	8.53	A	10.00	A	8.21	A
	F 값	4.49***		6.75***		10.17***		3.44**		3.61**	
결혼 형태	중매혼	8.38		7.76		8.14		9.84	BA	7.35	B
	연애혼	8.29		7.77		7.82		9.51	B	7.67	B
	중매+연애	8.60		8.28		8.28		10.21	A	8.20	A
	F 값	.94		2.86*		2.16		3.58*		4.70***	
결혼 여부	초혼유지	8.43		8.00		8.09		9.85		7.80	
	기타	7.86		6.62		6.94		8.70		6.86	
	t 값	1.42		3.41***		2.72***		2.48**		2.29*	
주거 형태	단독주택	8.58	A	8.10	A	8.30	A	9.86		7.83	A
	아파트	8.40	BA	7.98	A	8.05	A	9.87		7.87	A
	기타	7.95	B	7.36	B	7.31	B	9.48		7.38	A
	F 값	3.32*		4.76***		7.77***		1.04		1.94***	
주택 소유 형태	자가	8.44		8.01	A	8.09	A	9.94	A	7.86	A
	전세	8.47		7.78	A	8.08	A	9.45	A	7.87	A
	기타	7.87		7.03	B	7.20	B	8.45	B	6.38	B
	F 값	1.33		3.96**		2.92*		7.33***		8.20***	
가족 형태	핵가족	8.44		7.95		8.09		9.91		7.79	
	기타가족	8.01		7.53		7.32		8.64		7.32	
	F 값	1.30		1.26		2.21*		3.34***		1.36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8.48		8.05		7.85		9.78		7.59	
	200~300 만원	8.39		7.94		8.08		10.05		7.77	
	300만원 이상	8.33		7.77		8.09		9.60		7.82	
	F 값	.20		.73		.56		1.19		.45	

- 1) 직업 : 1(전문·행정·관리직) 2(사무·판매·서비스직) 3(주부·무직)
4(기타: 생산직, 농·수산업, 자영업, 기술직, 파트타임, 임시직 포함)
- 2) 가족형태 : 핵가족(혼자, 부부, 미혼자녀 가족 포함), 기타가족(친척, 딸·아들부부가족 포함)
- 3) *p<.05 **p<.01 ***p<.001
- 4)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혼형태는 절충혼인 경우 부부교육 요구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부관계 영역에서 초혼이 아닌 경우에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대체적으로 단독주택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에 대해 차이를 보이며, 특히 건강 영역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주택소유형태가 자기 집인 경우에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Duncan's-Test 결과 자가나 전세인 경우와 기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형태가 핵가족인 경우가 부부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기타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기타 관련 영역의 요구에 있어서 200~30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uncan's-Test 결과 200만원 이하인 집단과 200~300만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김명자·송말희(1998)²⁴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 왕석순·서병숙(1995)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중년기의 위기감이나 우울감, 아노미,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지며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 이는 소득이 중년기 부부교육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의 가족생활교육 내용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이 잘 고려된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보여진다. 아울러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여건에 맞는 부부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년기 위기감을 수반하는 이시기를 잘 적응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부교육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중년기 개인은 물론 부부들의 욕구에 기초한 중년기 부부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중년기를 대상으로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부부교육 내용 및 실시방법에 관한 요구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4) 김명자·송말희(1998),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3호, 전계논문, p.71.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중년기에 처한 사람들은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편보다는 아내가 중년기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필요 이유는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대처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둘째, 부부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나 돈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부부교육 실시 방법에 따른 요구를 살펴본 결과 부부교육은 평생동안 계속 되어야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내용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은 토론·대화·강의가 가장 많았고, 교육기관은 남편과 아내 모두 시민단체를 선호했다. 한편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는 3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넷째, 중년기 위기감은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부관계 만족도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 비해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여섯째, 영역별 부부교육 요구도는 대체적으로 아내보다 남편인 경우에, 본인연령이 46~50세 집단인 경우, 고졸이하의 학력일수록, 종교가 불교인 경우 부부교육 요구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부부관계에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을 경험할수록,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에 부부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대체적으로 중매와 연애로 결혼한 경우, 초혼인 경우, 주거가 단독주택인 경우, 주택소유가 자기집인 경우, 핵가족인 경우에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 월평균소득이 200~300만원인 집단이 부부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중년기에 처한 개인의 심리적인 사실들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연구에 사용된 객관적인 기준이 모든 중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중년기 부부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에 적절하며 다양한 욕구가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년기 특성에 따른 요구를 심층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함은 물론, 실생활에 부합되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부교육 요구가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

과는 달리 중년기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나,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해 다차원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교육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부부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중년기에 느끼는 심리적 위기감이 개인내적 요인과 아울러 부부 및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이러한 위기감이 사회에 가족 및 사회에 파급된다고 볼 때 국가 및 사회 차원에서 중년기 부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에서 부부교육이 실시되기를 요구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져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관계 만족도가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중년기 위기감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부교육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부부교육의 필요성과 그 유익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부교육에 대한 인식을 사회전반에 고취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부교육프로그램의 실시효과는 프로그램의 종료와 동시에 이루어져 효과검증에 제한이 있었는데, 부부교육프로그램이 실제 중년기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년기 특성에 따라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는 교육실시 후 효과검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2000년 중년기 인구 : 40~49세(6,898,728) 50~59세(4,295,210)

- A. Thornton(1989), "Changing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p.890.
- C. E. Vincent(1972), "An Open Letter to Caught Generation", *The Family Coordination*, Vol.21, NO.1,
- D. C. Borland(1978), "Research on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Vol.8, No.4,
- D.R.Mace(1987), "Three Ways of Helpi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13, pp.179~180.
- Daniel J. Levinson., Judy D. Levinson.(1996),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김애순 역(1998), 세종 연구원.
- E. Leshan(1973), *The Wonderful Crisis of Middle Age*, N.Y.: Waner Paperback Library,
- H.Clinebell, *Growth Counselling for Marriage Enrichment*, 이종현 역 (1990), 대한기독교서회, p.145.
- S. Hauerwas(1985), "The family as a school for character", *Religious Education*, Vol.80, pp.272-285.
-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1호, p.204.
- 김명자·송말희(1998),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3호.
- 송정아·전영자·김득성 공저(1998), 「가족생활 교육론」, 교문사.
- 신기영(1990),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기영·옥선화(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 예창명(1996), "중년기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요구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1.
- 오윤자(199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

학교.

유영주 외(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p.312.

이미나(2000), 「흔들리는 중년 두렵지 않다」, 한겨레신문사.

이정우 외(1990),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p.93.

정현숙(1998), 「부부관계의 기초」, 가족생활교육사(2급) 연수과정 연수교재,
p.104.

조선일보, "황혼이혼", 10년간 3배 늘어, 2003. 3. 27. 사회면.

조선일보, 불황 때 자살 급증, 2003. 4. 23, 경제란

(abstract)

**Studies in the satisfaction degree of middle-aged couple
relationship and the need of couple education and crisis**

Lee, Eun Jeong

Many middle aged couples can experience mid-age crises from psychological changes and from changes in the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they have difficulties finding the right methods to resolve their conflicts and their problems. This study is to offer basic information on the demand for couples education.

1,0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married couples who live in Jeju-do, South Korea. Collected 764 answers from 355 men and 409 women were used as the analysis data.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many middle-aged people feel highly the needs of couples education. Wives feel more needs of couples education than husbands. Second, most answerers ar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life. They are satisfied with the way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ples, way of decision making, and the way of love expression. Third, most answerers answered that they need the couples education for their all lives, and that contents of the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when they select a certain education. Fourth, with regard to the mid-age crisis, the crisis degree of husbands was higher than that of wives. Fifth, With regard to the loving areas, satisfaction degree showed in wife, the age of the fifties and under high-school mind in scholarship was more satisfied. Satisfaction degree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job of life partner, married type, married state, dwelling type, owned by dwelling, monthly income. Sixth, Generally wives believed in buddism in the age of late forty with low education tended to prefer more education for couple, and the demand of couple education described highly with satisfaction degree of a married couple relationship, mid-age crisis, educational participation.